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문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서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লেখক: 권정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법공양 페이지

# 애고·욕심 때문에 한생각을 내지 못해

제주에서 큰스님들, 여러 불자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불교는 묵묵하고 엄밀하면서 겸이나 보는 마구니라고 타고종인들이 모순된 말들을 합니다만 기록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모두가 지구라는 한 버스 안에 앉았다고 봅니다.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네 자리 내 자리,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불교의 심오한 뜻을 하나도 모르면서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죠.

풀 한 포기 생명도 둘 하나의 생명도 모두가 '불(佛)'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은 전부 불(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끝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불교란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진리를 순응해야 하며 시대가 발전하고 변천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용어를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시대의 용어로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종교를 막론해놓고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는 경향이 많습디다.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부터 발견하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이 세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번 게 아니죠. 모두가 나 혼자 한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높다 낮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높다 낮다 할 수가 없는가 하는 거죠.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사에 나, 나, 나,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늘 얘기하듯이 오싹통이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행을 잘하고 말을 잘 하면 잘하는 대로 입력이 될 거고, 못하면

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제도가 된 거고 천백억화신으로서, 지금 현재의 말로써는 원자에서 분자로서 입자가 수만 개가 나가서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이 돼 준다고 하죠. 잘 생각해보십시오. 마음은 내가 없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가는 아홉불 자체가 전체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몸 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잘 제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업보나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을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지않이라는 말이 있죠. 나오는 구별이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 애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체 만물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신지식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욕심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욕심을 벗고,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물론 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개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조금도 에누리라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너무나 도의 진리를 가깝게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통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움직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온통 욕심을 내게 하고 분기가 나게 하고 빛나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선장으로 써 다스리면서 나오는 구별이다 다시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는 구별이다 다시 맡겨놓지 않는다면 업보가 없어질 수가 없고, 번뇌망상이 녹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져서 조각조각 가루가 된다 한들 뉘이 속이 상합니까?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 있다면 부처님 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도 형성될 때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대천지 세계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검은 대륙이라 '그랄'요? 하여튼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져서 대우주를 형성시켰고, 별을 형성시키고, 태양을 형성시키고, 위성을 형성시키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형성시켰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나처럼 나가는데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한데 원력이 주어져 있으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도들이 오든 안 오든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가게 물건을 사러가면 가게 주인한테 돈만 줄려고 가는 게 아니죠.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돈을 내놓고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돈 준 사기도 없고, 저쪽에는 물건 준 사기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도는 생활 속에 있는 것.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떠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신지식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욕심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욕심을 벗고,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물론 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개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조금도 에누리라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더라고요.

씩이 자기 뿌리를 안 믿고 딱 나무를 믿고, 딱 나무의 이름을 믿고, 딱 형상을 믿는다면 에너지가 자기 나무 쪽으로 올라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너무너무 알고 했고, 달마대사께서도 너무너무 알고 했고, 모든 부처님들, 선지식들께서 다 너무너무 알고 했습니다. 나를 모른다면, 과거의 나를 모른다면, 과거의 나를 잡고 가야만 이 무의 세계, 정신세계를 타파할 수 있는데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를 모른 채, 즉 말하자면 자기 뿌리를 모른 채 하고 딱 이름을 믿고 딱 형상을 믿고 온통 나를 실려달라고 하니 이게 될 뻔한 일입니까?

그러고도 정신계가 물질계와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지금 의학계에서도 병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대처를 할 텐데 어디서 온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만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학술을 배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 모두가 마음 빼놓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도 한 40%밖에는 이끌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신지식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욕심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욕심을 벗고,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물론 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개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조금도 에누리라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신지식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욕심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욕심을 벗고,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물론 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개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조금도 에누리라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신지식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욕심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욕심을 벗고,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물론 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개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조금도 에누리라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더라고요.

### "네 마음부터 발견하라"

나무 일새나 가장구가 무엇으로 인해서 푸르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짙어지면 근본 불성은 바로 영원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짙은 제 뿌리를 믿어야 만이, 쉽게 얘기해서 철분, 지분, 수분을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태양열과 공기력을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서로 상응하면서 푸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대 성인들도 말씀하셨거니와 부처님들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마 지금 부처님들도 말씀하실 겁니다. 제 뿌리를 믿어서 제 나무에서 쫓겨 피고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제 나무에서 익은 열매는 만 가지 맛이 남으로써 그 맛을 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각자를 보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틀리는 게 없는지. 여러분 몸 속에 자생중생들이 꼭 있습니다. 자생중생들이 세포 하나 하나에도 꼭 차 있습니다. 꼭 차 있는 자생중생들을 어떻게 해야 만이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못 하는 대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대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죠. 그것을 번뇌망상이라고 하고, 애고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성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세균성이라고 하고,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대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깐 나오는 구별이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에 입력된 게 없어진다 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물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세계만이 등장을 해서 절대 올바른 과학이 아니며 올바른 천체물리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학, 올바른 철학이 아닙니다. 단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은 부피가 어떻게, 저리가 어떻게, 어떻게 생겼고 따지면서 발전해 내는 것이 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라는 것은 그와 더불어, 배가 고프면 스스로 먹을 줄 알고, 목이 마르면 스스로 마실 줄 알고, 잠자고 싶으면 잠 잘 줄 알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날 줄 아는 진짜 자유인이 되어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을 때에 이듬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생 중생들을 다 제도

나도 없습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살니다.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공력이라든가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 각자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한생각에 의해서 모두 쓸 수 있는 것을 습에 깎달리고, 애고에 깎달리고, 욕심에 깎달리기 때문에 한생각을 지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러가듯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 뜻이 무엇인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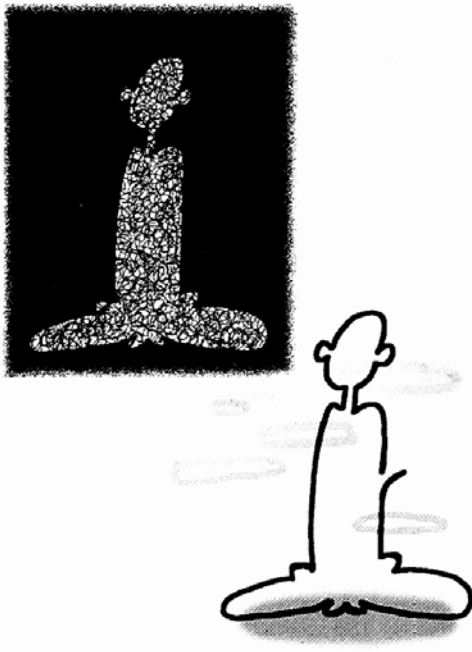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道는 내 생각·마음속에 있는 것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

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건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맡혀서 병이 생기고 파취가 일어나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통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풀 한 톨을 먹었다 합니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